



중국산 생산물 책임보장 요구 확대로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 등장

- Zurich 보험회사는 생산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제3자(제품구입자, 제품사용자 등)의 경제적 손실(신체적 손해 제외)을 보장하는 '제조상소홀책임보험(制造商疏忽責任險)'을 6월 13일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함.
 - 기존에 판매되던 '생산품책임보험'이 생산제품의 품질문제로 인한 제3자의 신체적 손해만을 보장하는 반면, 새롭게 판매되는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은 신체적 손해를 제외한 제3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함.
 - Zurich 보험사는 이번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의 출시로 중국 제조업체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이 제공될 수 있음을 강조함.
 - Zurich 보험사는 IT, 전자제품, 일용품산업 등에서 제조상소홀책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며,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이 '생산품책임보험'보다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.
-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은 국제무역과 관련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중국 보험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, 외자계 보험회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 - '제조상소홀책임보험'은 보험회사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보상시스템 등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중국 보험회사들이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음.
 - 해외구매자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책임보장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보험가입 의식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 보험회사가 부딪히는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외자계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영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(경제참고보 등 6/10)